

■ 주요 뉴스: 미국 연준, 금리인상 속도에 관한 내부 의견차 확대

- 영국 트러스 총리, 기존 감세계획 고수. S&P는 영국 등급전망 '부정적'으로 하향
- ECB 비스코 정책의원,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인상 계획에 반대
- OPEC+, 일일 100만 배럴 이상 대규모 감산 방안 고려

■ 국제금융시장: 영국발 금융시장 충격과 통화긴축, 경기침체 우려로 위험회피 지속 주가 하락[-2.9%], 달러화 약세[-1.0%], 금리 상승[+15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매파적 연준과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세 지속
유로 Stoxx600지수도 영국발 충격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BOE 개입 후 파운드화 반등, 분기말 차익실현 등으로 약세
유로화는 ECB 긴축 강화 전망에 1.2% 상승, 엔화 가치는 1.0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통화긴축 지속 전망과 영 금리 급등 등으로 상승
독일은 9월 유로존 CPI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5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9/30일	9/23일	전주말대비			9/30일	9/23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3,585.6	3,693.2	-2.91%	국채 금리 10y	미국	3.83%	3.68%	15bp
	유럽	387.85	390.40	-0.65%		독일	2.11%	2.02%	9bp
	중국	3,024.4	3,088.4	-2.07%		영국	4.09%	3.83%	26bp
	일본	25,937	27,154	-4.48%	CDS 5y	한국	58bp	50bp	8bp
	한국	2,155.5	2,290.0	-5.87%		중국	108bp	104bp	4bp
환율	달러지수	112.12	113.19	-0.95%	위험 지표	EMBI+	467	447	20bp
	유로화	0.9802	0.9687	1.19%		VIX	31.62	29.92	5.68%
	엔화	144.74	143.31	-1.00%	원자재	WTI유	79.49	78.74	0.95%
	위안화	7.1159	7.1284	0.18%		구리	341.3	337.2	1.22%
	원화	1,430.2	1,409.3	-1.48%		금	1,660.6	1,643.9	1.0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연준, 금리인상 속도에 관한 내부 의견차 확대

- 최근 미국 연준위원들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증가하는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인상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를 내놓기 시작
-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와 같은 매파 위원들은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
-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시장의 조기 정책전환 기대를 경계하면서도 금리인상의 국가간 파급효과가 금융취약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.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총재도 연준이 가혹한 침체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
- 금주에는 비둘기파 성향의 애틀란타 연은 보스틱 총재와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, 긴축 속도에 관한 연준 내부시각 변화에 주목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영국 트러스 총리, 미니 예산안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감세계획 고수

- 트러스 총리는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예산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했고 현재 영국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음을 인정하지만, 정부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고성장-저세율의 경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계획을 고수

■ S&P, 영국 신용등급 전망 '부정적'으로 평가

- S&P는 영국정부의 재정 부양책 영향으로 '25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가 평균 2.6%p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, 경기악화와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이 동반될 경우 위험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

■ ECB 이나치오 비스코 정책의원, 지나치게 공격적인 ECB의 금리인상 계획에 반대

- 이탈리아 중앙은행 비스코 총재는 경제전망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하면서, ECB가 향후 수개월간 연준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일 수 있다고 경고

■ OPEC+, 일일 100만 배럴 이상 대규모 감산 고려

-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(OPEC+)는 5일 빈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달러 강세에 대응해 대규모 감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, 시장전문가들은 일일 50만에서 100만 배럴 이상 감산 합의를 전망

■ 러시아 가스프롬, 이탈리아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

-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은 오스트리아 경유 가스관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에니(Eni)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
- 한편 차기 총리가 유력한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 대표는 총선 후 첫 연설에서 EU의 가스가격 상한제 합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선언

■ 한·미 재무장관,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

- 양국 재무장관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글로벌 경제동향과 외환시장 협력,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, 향후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

■ 제이피모건, 금년 중 신흥국 채권펀드 자금유출 규모 \$700억 상회

- EPFR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\$42억을 포함해 금년 중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\$700억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으며, 미국 달러화 강세 등으로 연간 유출규모가 \$8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근원 PCE 가격지수(전년동기대비): 4.9%, 7월(4.6%), 예상치(4.7%)
-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(확정치): 58.6, 예비치(59.5)
-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지수(전년동기대비): 10.0%, 8월(9.1%), 예상치(9.7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의 9월 ISM 제조업지수(예상치 52.1)가 발표되며, 뉴욕연은의 윌리엄스 총재와 애틀란타 연은 보스틱 총재의 연설이 예정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48, E-mail dhkwon@kcif.or.kr